

어촌체험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어촌 관광만이 살길이다!

- 어촌체험마을 운영관계자 15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어촌관광 활성화 방안 등 모색 -

전국 연안의 어촌체험마을사업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어촌 체험마을 운영역량 강화를 위한 '어촌체험마을사업 활성화 워크숍'이 지난 6월 24, 25일 양일간 충남 아산 파라다이스호텔 도고에서 개최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주관한 이번 워크숍은 어촌체험마을사업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5여명과 어촌체험마을을 직접 운영하는 어촌계장(사무장 포함) 80여명, 어촌체험마을을 컨설팅하고 있는 전문가(컨설턴트) 15명 등 총150여명이 모여 체험마을 운영노하우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은 물론, 체험마을 운영상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오병석 수산개발과장이 "어촌관광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정책설명을 하였으며, 지역리더십센터 함께이룸 조재학 공동대표의 "참여와 협력을 이끄는 공동체 리더십"과 한양대학교 관광학과 최승담 교수의 "최근 관광경향에 따른 어촌관광 대응전략"에 대한 전문가 특강이 이어졌다.

또한 2009년 우수어촌체험마을 선정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화성 백미리마을"의 성공사례 발표도 있었으며, "태안 벚가리마을", "홍성 문당마을"의 농촌관광 성공 사례를 접하는 기회도 가졌다.



▲ 우수어촌체험마을 사례발표 (화성 백미리마을)



◀ 워크숍을 마치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참석자들

갯벌산업연구회 창립총회 및 세미나 개최

심호진 회장, 갯벌산업연구회 회장으로 추대

한국어촌어항협회 심호진 회장은 지난 5월 14일 전남 무안생태갯벌센터에서 열린 갯벌산업연구회 창립총회에서 초대회장으로 추대됐다.

갯벌 전문가 및 산·학·연 관계자 등이 모여 출범한 「갯벌산업연구회」는 우리나라 갯벌 수산자원 조성과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어업인 소득을 증대하고 고품질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을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함과 아울러 수출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갯벌 이용 전반에 관한 정보 교환과 발전방안을 위한 토의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갯벌 이용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25일 충남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갯벌과 관련한 산·학·연 전문가 및 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갯벌산업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 세미나 전경



◀ 한국농림수산물정보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 한국원양산업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후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는 심호진 회장(左)과 장경남 회장(右)

한국농림수산물정보센터 및 한국원양산업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해외어항개발 및 수산관련 정보교류 확대

한국어촌어항협회는 한국농림수산물정보센터 및 한국원양산업협회와 지난 5월 12일과 7월 6일 각각 해외어항개발 및 수산분야 각종 정보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들은 해외어항개발사업과 어촌체험 프로그램 공동 기획·제작 등과 관련,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 기관간 지원체계 강화와 우호적인 협력관계가 요구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올해 다양한 정책교류 및 정책지원 협력체계 강화와 수산관련 연구협력 및 기술 컨소시엄 협력관계 구축을 위하여 지자체, 공공단체와 수산관련 대학교, 전문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Photo News

아름다운 어촌, 세계를 매료시키다 한국어촌어항협회, 주한외교관 어촌으로 초대

- 대사 등 14개국 60여명, 7월 17~18일 남해 문항마을 방문 -

한국어촌어항협회는 7월 17~18일 양일간 남해 문항마을에서 세르비아, 아프카니스탄, 온두라스 대사를 포함하여 14개국 60여명의 주한 외국공관 대사와 외교관 및 그 가족을 초대,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주한 외교관과 가족들은 농림수산식품부 하영재 차관, 한국어촌어항협회 심호진 회장, 정현태 남해군수와 마을주민들의 뜨거운 환대를 받으며 마을에 도착하여 주민들이 정성껏 준비한 점심식사를 한 후,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개막이 체험, 솥잡이, 갯벌체험 등 문항마을의 대표 어촌체험들을 즐겼으며, 저녁에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수산물 바비큐 파티를 열어 주민들과 하나되는 한마당 잔치도 열었다.

특히 이번 체험에서는 주한 외교관들에게 사전의 양해를 구하고 마을 주민가정과 참가국간의 1가정 - 1국가를 매칭하는 형태의 숙박을 제공하였는데, 침대가 없는 등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아름다운 어촌과 거기에서 삶을 영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훈훈한 인심도 맛보게 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어촌관광자원의 우수성을 지구촌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향후 어업인들의 국제화 마인드 제고 및 어촌관광의 다양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개막이체험을 즐기는 세네갈 1등서기관 길버트 듀프 부부



2010 수산물브랜드대전 성료 「영광법성포굴비특품사업단」등 7점 엄선 전시

우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지역 특산 수산물 소비확대 기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4일간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0 수산물브랜드대전」을 개최했다.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우수 브랜드에 대한 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주관한 이번 수산물브랜드대전에서 '영광법성포굴비특품사업단'이 올해 최고의 브랜드로 선정되어 대상을 받았고, '궁중기장돌미역'이 금상을, '제주어간장'과 '한려수어(멸치)'가 각각 은상을 받는 등 총 7개 브랜드가 우수 브랜드로 선정되었다.

이번 수산물브랜드대전에서는 우수브랜드 시상식과 함께 전시회, 특별판매 및 시식 행사, 입상수산물 요리시연회, 경매쇼, 퀴즈쇼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가졌으며, 행사기간 동안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해에 이어 2번째를 맞는 「수산물브랜드대전」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우수 수산물 브랜드에 대한 국민 인지도 제고와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 지역 특산수산물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시작한 대회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에 선정된 수산물브랜드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지원하여 지역 특산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킬 계획이다.



◀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임광수 수산정책실장(사진左)과 심호진 회장(사진右)

노사공동 고객현장 체험 워크숍 개최

한국어촌어항협회는 7월 16일 자매결연 어촌인 안산시 선감마을에서 노사공동 고객 현장 체험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날 노사 양측은 노사화합 체육활동, 조개잡이 현장체험, 어촌체험관광마을 발전 간담회 등 다양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노사관계 선진화 실천을 위해 노사 화합과 협력 활동을 강화하며, 고객현장을 노사공동이 직접 체험하고 일선의 생생한 목소리 직접 청취하여 고객 접점의 서비스를 강화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 조개잡이 현장체험에 즐거워하는 김홍식대리

